

## 현역 불출마 광산구 8명 치열한 선거전 측근 수사 나주시 예비후보 17명 난립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최대 격전지는?

광주 광산·서구 2곳, 전남 10여 곳  
세 과시·후보 비방 등 치열한 경선전

오는 6월1일 치러질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본인 또는 친인척·측근 비리 의혹으로 입지가 불안한 일부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에서는 5개 구청장 선거 가운데 광산구청장 선거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출마 예정자만 8명이 넘었다.

이들은 대부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세 과시와 함께 후보 간 비방전이 시작되는 등 민주당 내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와 더불어 광주 서구청장 선거도 뜨겁다. 현직인 서대석 서구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형(1000만원)을 확정 받으면서 도전자들의 기세가 무섭다. 현재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 간 합종연횡도 예상된다.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는 목표와 나주, 여수, 광양, 순천, 진도, 담양, 곡성, 함평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현직 시장군수가 3선 제한으로 출마가 제한된 담양·진도군수 선거와 현직의 불출마 선언지역(광양·곡성·화순), 본인 또는 측근 비리 의혹으로 입지가 불안정한 지역(순천·나주·함평),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지역(목포)이다.

이들 9개 지역은 많게는 20명 가까운 출마예정자가 난립하고 비방전이 시작되는 등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선거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전남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단연 나주시 시장 선거다.

현 강인규 시장의 아들과 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시 환경미화원 채용 잡음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면서 17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4강 후보로 꼽히는 예비후보 일부는 겨냥한 비리 의혹 제기가 문자마식으로 벌어지는 등 선거가 '이전부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담양과 진도의 경우 현 군수가 3선 제한에 걸리면서 이날 현재 각각 4명,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격전을 예고했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을 끝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화순과 곡성 군수 선거에도 각각 6명,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 동부권의 도시도 하나같이 뜨거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광양의 경우 현직인 정현복 시장이 부동산 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날 현재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직 국회의원과 현 전남도체육회장, 11대 전남도의회 의장 등 강력한 후보군들이 도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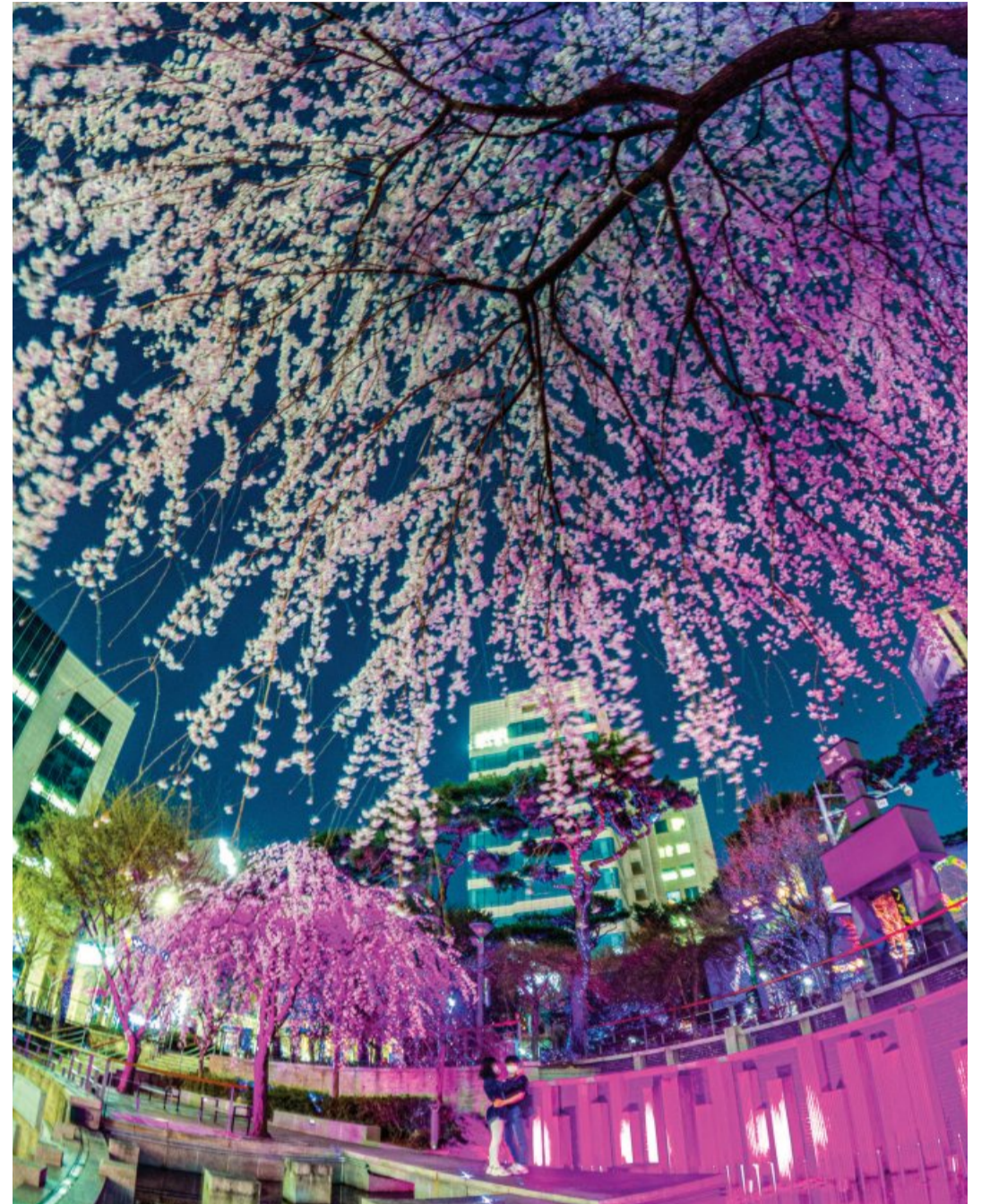
순천시장 선거의 경우 현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 기금 편취(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입지가 흔들리자 전직 전남교육감, 전직 시장, 전직 판사와 도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7명이 도전을 던졌다. 함평은 현직 군수가 '1000만원 양복 뇌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전직 군수 등이 도전에 나선 상태다.

여수시장 선거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와 변호사, 지방의원, 여수시의회의장 등 8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목포의 경우 박종률 전 시장이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현 김중식 시장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 프리미엄은 상당하다"면서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도전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부분의 출마 예정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민주당 내 경선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빛과 벚꽃의 황홀한 야경 3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공원에 만개한 벚꽃이 조명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벚꽃 아래서 봄 날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새 정부 총리 후보 3명 압축...안철수 "내각 참여 않겠다"

박주선·한덕수·김한길 유력 거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대 변수였던 '안철수 카드'가 소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인선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당선

인계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을 직접 만나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재총선 후 당권에 도전하거나 경기가시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출마) 생각은 없다"고 일축한 뒤,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만 지니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진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 맥락에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총리 인선도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총리 후보군이 3~5배수로 압축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르면 내주 초 총리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총리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내각의 핵심 보직을 빈칸으로 늘어놓고 최적의 '라인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의 방점은 경제와 국민통합에 찍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통상 전문가로 외교에도 식견이 깊은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전북 전주 출신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남 보성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의장도 유력한 총리 후보다.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현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 DJ맨으로 정무적 감각도 뛰어난 국민통합형 총리 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총리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사 검증팀은 이미 총리 후보뿐 아니라 다수의 정부 부처 장관 후보도 동시에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나란히 3억여원 늘어

공직자 재산 공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3억여원 늘어난 1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개된 광주 공직자 33명 중에는 25명의 재산이 늘었고 8명은 줄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보다 3억1000만원이 늘어난 18억원을 신고했다.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23명(71%)은 재산이 증가했고, 9명(29%)은 재산이 감소했다. <관련기사 3면>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김중효 전 행정부시장은 1억7600만원 증가한 20억6700만원,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20억900만원 증가한 47억3800만원, 김진철 광주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7억

6200만이 늘어난 32억2500만원이다.

구청장 중에서는 임택 동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김삼호 광산구청장이 각각 2억300만원, 6억1500만원, 9억300만원이 증가한 재산을 신고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9700만원이 줄어든 8억7600만원, 문인 북구청장은 3억6900만원이 줄어든 13억8700만원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7900만원이 늘어난 10억3100만원을 신고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400만원이 늘어난 13억3000만원,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9500만원이 증가한 10억4000만원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재산신고액은 2억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 늘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문명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Sulwhasoo

### 설화수 자음생크림

#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간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도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피부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라면제조(피부)연구소(주) 시험기간: 2021.03월 03일 ~ 2021.05월 03일